

Dave Mathewson 박사, 해석학, 강의 24, 신약의 구약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의 용법을 연구하는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네 번째 문제나 질문은 랍비 기법의 사용입니다. 이전 세션에서 우리는 초기 랍비 문학이 미드라쉬 페셰르(midrash pesher)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구약을 해석한 방식에 대해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것은 구약성경 본문에서 말한 내용이며, 구약성경이 그 시대에 성취된 것을 보거나,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논쟁하거나, 유사한 표현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연결하는 것 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성서의 저자들이 단순히 그 시대의 표준적인 해석 원칙과 해석 기법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 왔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신약성서의 저자가 구약성서를 활용하는 방식은 랍비 해석가들이 구약성경을 다루는 방식과 대조되어 구별됩니다. 구약성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제기한 질문 중 하나는 구약성서를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저자들이 구약성경을 다루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구약성경을 다루는 것이 허용됩니까? 이것들은 중요한 질문이지만 최근에는 신약에서 구약의 용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다른 질문도 제기되었으며, 그 문제 중 하나는 신약에서 구약의 용법을 어떻게 분류하거나

분류하는가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약성서의 학생들은 세 가지 가능한 사용법을 분리하거나 분류했습니다.

하나는 직접 인용이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저자가 구약성경 본문을 사용했음을 명시적으로 알리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즉, 그는 독자들이 구약 본문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에 기록된 것과 같은 인용 형식을 사용하여 직접 인용을 표시하거나 호세아서에서 말한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 발생했거나 기록된 대로 일부 공식을 사용하여 표시됩니다. 이는 저자가 구약 본문을 인용하거나 독자에게 지시하려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발견하는 것은 대개 손상되지 않은 구약성서 본문의 인용문입니다. 두 번째는 암시의 범주이다.

일부 신약학도들은 암시에 주의를 끌었습니다. 즉, 첫 번째와 달리 인용문이 명시적인 경우 공식에 의해 도입되며 일반적으로 신약성경 본문 자체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암시에서 저자는 구약성경 본문을 가리키려는 의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는 대개 표현과 구조, 개념을 취하여 자신의 담론에 엮습니다. 따라서 구약성경 본문이 특히 구약성서에 대한 필수 지식이 있는 경우 구약성경 본문이 참조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저자는 다음과 같은 인용 공식을

사용하여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쓰여진 대로. 그리고 저자는 대개 그 언어를 자신의 담론에 엮습니다.

그것은 암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용문보다 식별하기가 조금 더 어렵지만 유사한 구조, 유사한 어휘, 유사한 해당 의미는 저자가 독자에게 이전 구약성경 본문을 가리킬 의도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 암시의 좋은 예는 에베소서 1장 20~22장인데, 내 생각에 우리는 이 구절을 전에 읽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과 20장, 20장부터 22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구약성경 본문을 명시적으로 인용하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분명히 구약성경 본문을 연상시키는 언어를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2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행사하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느니라.

그를 오른편에 앉히신다는 표현은 시편 110편의 어휘와 언어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및 모든 칭호 위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현 세대가 아니라 다가올 세대에도.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는데, 이는 시편 8장의 어휘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구약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그 언어와 구조까지도 취하여 그것을 자신의 담론에 엮음으로써 암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의도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해하기 위해 구약의 핵심 본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이자 세 번째 범주는 흔히 메아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아리가 구약성경을 좀 더 교묘하게 사용하는 것, 또는 저자가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구약성서를 미묘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때로는 한두 단어일 때도 있지만 마음 속에 더 많은 울림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암시만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더 명확한 것부터 더 미묘한 것까지의 규모로 볼 수 있습니다. 인용문이 더 명시적일수록 에코라는 표현이 더 미묘하게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들은 종종 구약성경 본문의 속삭임에 가깝고, 어떤 사람들은 저자, 즉 신약성서 저자가 이 구약성경 본문을 언급하려는 의도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고 관심을 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은 종종 옥중 서신으로 알려진 이 문서에서 실제로 감옥에 있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1장 19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내게 당한 일이 내에게도 그대로 되는 줄을 아나니 내가 항상 기뻐하리라”고 했습니다. 구출. 나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욥기 13장과 16절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암시를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욥기 13장의 반향을 의도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곳에서는 욥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빌립보서 1장의 구약성경 본문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저자가 욥에게 의도한 언급인지, 아니면 더 많은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저자가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미묘한 사용법인 에코를 텍스트 해석에 있어서 큰 의미를 두어야 할까요? 인용, 암시, 반향이라는 세 가지 용법을 식별하는 것과 함께, 특히 암시와 반향에 관해 학생들은 저자에게 '암시나 반향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질문은 "저자가 의도한 걸까요?"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저자가 실제로 구약성경 본문을 언급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도 구축했습니다.

예를 들어, 본문에 비슷한 문구가 있나요? 신약성서의 저자가 구약성경 본문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 표현이 신약성서와 구약성서 사이에 암시를 보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유사한 것 같습니까?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본문 사이에 비슷한 구조가 있습니까? 저자가 해당 텍스트를 다른 곳에서 참조합니까? 저자가 이사야서의 어떤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제안하거나 생각한다면, 저자가 이사야서를 알고 있었거나 그의 책의 다른 곳에서 이사야서를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것은 확실히 뒷받침되고 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나요? 다른 신약성서 학생들과 주석가들 역시 유사한 구약성서나 동일한 구약성서 참조를

발견했습니까? 즉, 다른 사람들도 암시를 듣고 암시를 인식한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이 마지막 기준은 다른 누구도 하지 못한 새로운 통찰력이나 암시를 발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학생들은 우리가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 알아내려는 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인용은 조금 더 쉽지만, 저자가 기록된 대로 정식으로 시작하지 않거나 예레미야가 말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일어난 일이거나 그와 유사한 경우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어휘, 유사한 어휘, 유사한 구조, 유사한 의미 및 기능과 같은 것입니다. 저자가 텍스트를 다른 곳에서 언급하거나, 인용하거나, 다른 곳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한 것들이 지적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기준 외에도 이러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신약학도가 생각해 낼 수 있는 확신의 수준, 그들이 달성할 수 있는 확신의 수준, 실제로 구약의 암시를 식별했다는 것을 확립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때때로 여러분은 신약성서 학생들이 암시가 확실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인용문에 국한되지 않고 저자는 인용문에 대해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그러나 암시가 확실한지, 즉 표현에 충분한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저자가 다른 구약성서 본문, 특히 같은 책의 다른 본문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일부 학생들은 저자가 구약성서에 대한 암시를 의도한 것이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다음 범주는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즉, 확실성의 수준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저자가 실제로 구약성서 본문을 다시 언급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저자가 없다면 분명히 우리는 확률만을 제안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범주는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 암시를 가능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확신할 수 없으며 높은 수준의 확률을 설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저자가 실제로 이것을 의도했을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성서 참조에 대한 일부 제안은 실제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두 문맥 모두 구약성서 암시를 보는 것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범주는 주로 우리가 진정한 암시나 반향 등을 분리했는지 여부에 대해 달성할 수 있는 자신감 수준에 호소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최근 연구에서는 상호텍스트성의 최근 현상과 그것이 우리가 신약에서 구약을 읽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 단지 두 가지 초점이 있는데, 첫째는 상호텍스트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상호텍스트 연구에 대한 초점은 저자에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내가 방금 제기한 대부분의 문제는 주로 저자의 의도와 역사적 배경, 저자가 우리에게 구약성경 본문을 가리킬 의도가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상호텍스트성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사이의 연결을 저자가 말한 내용에만 제한하지 않습니다. 예정된. 그러나 그 대신 제안된 구약성서의 암시가 생산적이고 통찰력 있고 타당한 읽기를 가능하게 하는지, 아니면 본문에 새로운

통찰력을 더하고 문맥에서 의미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초점은 저자와 저자의 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독자가 가능한 서신을 식별하고 그것이 텍스트를 생산적으로 읽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상호텍스트성의 두 번째 특징은 대화의 특징입니다. 즉, 신약성경 본문이 구약성경 본문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해석자가 두 본문 사이의 일련의 대응 관계를 탐구하고 질문하도록 요청받는 관계가 설정됩니다. 구약성경 본문에 비추어 신약성경 본문을 읽는 것은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 구약 본문은 신약 본문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며, 신약 본문은 구약 본문을 어떻게 변형시키는가? 따라서 목표는 구약과 신약 본문 사이의 가능한 상호 작용을 탐구하고 구약과 신약 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성서에서 구약성경의 용법을 연구하고 신약성서 저자들의 구약성경 본문 용법을 분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전 논의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을 간단히 제시하고 몇 가지 명시적인 예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우선, 더 유용한 도구 중 하나는 구약성서의 암시와 용법에 관심을 끄는 주석과 기타 작품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약성서의 다른 해석자들이 어떤 구약성경을 보고 관심을 끌었는지 살펴보십시오.

하지만 그것은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내가 더 많이 할수록 때로는 주석이 이전에 다른 주석이 말한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고 의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단지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을 가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하기 좋은 곳은 가능한 구약의 암시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될 다른 주석과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용문은 식별하기가 더 쉽지만, 구약성경의 암시, 심지어 반향, 보다 미묘한 사용은 때때로 주석에서 도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나는 단순히 신약성경을 알고 듣고, 신약성서 본문을 듣고,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사이의 가능한 대응을 듣기 위해 귀를 열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는 구약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더 많이 할수록, 구약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구약 본문과 그 문맥을 더 많이 알수록, 신약의 공명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텍스트.

셋째, 인용문인지, 암시를 다루고 있는지, 좀 더 미묘하게 반향을 다루고 있는지 등 참조 유형을 최대한 파악하세요. 넷째, 글의 형식을 고려하라. 나는 질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자가 주로 칠십인역에 그림을 그렸습니까? 구약성경 본문의 형식은 주로 히브리어 본문입니까? 그리고 차이가 있는 것 같나요? 이것이 신약에서 구약의 사용을 이해하는 방법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까? 다음으로, 구약 본문의 원래 문맥과 배경, 역사적, 문자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약성경 본문의 원래 의미와 의도는 무엇으로 보입니까? 또 다른

하나는 구약 성서 본문이 초기 유대교와 랍비 해석가들에 의해 초기 유대교에서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해 두루마리나 다른 랍비 문헌, 심지어 위경과 묵시 문헌에 물어보세요. 여기서는 신약에서 구약의 사용에 관한 주석과 기타 전문적인 작품에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 구약성경 본문은 분명히 초기 유대교와 랍비 해석에서 해석되고 활용되었습니까? 그리고 다음은 신약성경 저자가 구약성경 본문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신약성경의 맥락에서 그것은 어떻게 기능하는가? 구약성경 본문이 신약성서에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가? 즉, 나는 저자가 그려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약성서의 하위 텍스트에 비추어 신약성서 본문을 읽지 않는다면 신약성서 본문에서 어떤 의미가 누락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작가는 이를 어떻게 활용했나요? 다시 말하지만, 이는 간단한 예측 성취로 보입니까? 그것은 유형론적, 유추적, 아니면 단지 예시 등을 통해 활용되는 것에 더 가깝습니까? 저자는 구약성경 본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나요? 그 맥락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 탐험해보세요. 상호텍스트성의 통찰 중 하나는 대화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텍스트 사이의 가능한 상호 작용을 탐색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저자의 의도로 이야기한 현상의 한 예일 수 있습니다. 시작하면 구약의 더 미묘한 사용법을 찾거나 발견할 수도 있고 구약과 신약의 문맥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연관성을 볼 때도 때로는 작가가 의도한 바가 있는지 없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로는 단순히 저자의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한 유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자가 참석했을 때 당신이 이 구약성경 본문을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그런 종류의 것입니까?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귀하가 그 문제를 확인했거나 그 문제를 제기했으므로 확실히 말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내 작업에 대한 유효한 통찰력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또는 저자가 구약성경 본문을 다시 언급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탐색하면서 특정한 연관성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신이 저자에게 묻는다면, 저자는 "아니오, 나는 그런 연결을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그것을 관찰해보면 그게 말이 됩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내 텍스트에 대한 유효한 통찰력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약성경 본문을 암시하는 한 저자가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마도 그것에만 국한할 수는 없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자가 의도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지만 여전히 텍스트를 이해하고 저자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라 유효한 텍스트 사이의 미묘한 암시나 연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본문과 그 문맥에 대해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것이

본문에 대한 타당한 이해와 독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질문은 신약성서의 저자가 랍비 유대교와 초기 유대교 해석에서 사용된 방식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구약성경 본문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여섯 번째 질문, 즉 여섯 번째 원칙은 구약성경 본문에 대한 궁극적인 이해가 신약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방식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가능한 연결과 암시, 반향과 인용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이 신약성서 본문을 해석하는 데 실제로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신약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타당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종의 문제나 질문의 모음일 뿐입니다. 구약성서, 다시 구약성서를 사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성서 작가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취를 이루셨는지 개념화하면서 구약성서의 예를 활용하고 구약 성경 본문을 활용했으며 궁극적으로 구약성서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성취되었는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드린 대로 해설의 형태로 도움이 될 만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의 구약 사용에 대한 최근 연구 개요 중 하나는 Don Carson과 Greg Beal이 편집한 A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Use in the New Testament라는 책이며, 신약의 각 책을 다루는 일련의 에세이입니다. ,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장별로

작품을 논의하고 인용문에 대해 논의할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본문에 대한 암시와 때로는 반향도 논의하며, 신학적으로나 해석학적으로 이것이 신약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방식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설명합니다. 다루고 있는 구절.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구약성경을 그 자체의 구성에서 명확하게 활용하는 몇 가지 구약성서의 구절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초점은 주로 암시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인용문을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로 암시 또는 반향, 즉 구약성경 본문이 채택되고 그 문구와 구조가 구성에 짜여져 저자가 반드시 자신의 사용을 표시하지 않는 구약성서 사용의 예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인용 공식에 의한 구약의.

그리고 저는 복음서의 예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서신서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일반서신으로 알려진 것, 히브리서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비록 인용 공식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구약을 암시하는 다른 어떤 책보다 더 광범위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이렇게 한 또 다른 이유는 과거에 신약의 구약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직접적인 인용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여기서 저자는 다시 새로운 구약 본문을 지적하려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인용 공식을 사용하지만 최근 지난 20년 정도 동안 암시, 즉 암시와 메아리, 즉 구약성서의 좀 더 미묘한 용법에 관심을 끄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2장에서 저자가 구약성경을 광범위하게 인용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의 다양한 지리적 이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구약성서가 사용된 것을 거의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장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부터 시작하여 애굽으로 가셨다가 돌아오신 일 등입니다. 마태복음 2장은 종종 예수의 지리적 이동을 설명하고, 예수의 어린 시절을 정당화하고, 초기 사건이 구약 본문 의 성취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 우리가 2장과 5절에서 살펴본 내용 중 하나는 저자가 인용하거나 유대 지도자들이 미가서 5장과 2절을 인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내용은 그 무엇보다도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간단한 예측 이행을 위해.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2장과 15절에서 제기한 또 다른 본문은 저자가 호세아 11장과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으니 호세아 11장 1절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예언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다루셨으며,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역사적 보고인 것 같습니다 . 그래서 호세아 11장과 1절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언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구절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나 그와 유사한 어떤 암시 도 없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장과 15절에 있나요? 그가 호세아 11장과 1절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 생애의 초기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마태가 이 단어를 좀 더 예표론적이거나

유비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사랑하시는 옛 언약의 사건이 이제 더 큰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

그래서 마태는 호세아 11장과 1절이 실제로 예언이거나 두 번째 수준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마태가 발견한 다가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대신, 마태는 마태복음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즉 그의 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집트에서 보존하신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큰 아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실 때 구약에서 확립된 패턴을 채우거나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그의 아들 곧 이스라엘 민족이니라. 더욱이 마태복음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운명을 재현하고 실제로 성취하시는 분으로 보인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더 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일을 성취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 때문에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구약성경 본문을 이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성서에서 그의 아들을 보존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성취의 시대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새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이스라엘의 운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한 번 행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구약성서의 더 미묘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도에 주의를 끌기 위해 저는 마태복음 2장에서 진행되는 거의 모든 것, 특히 초기 구절에 근본적인 구약성서 이야기나 하위 텍스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쉬운 것부터 강조하자면, 태어나고 자신을 죽이고 싶어하는 억압적인 사악한 왕에 의해 생명이 위협받는 아기에 관한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아기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왕국에 있는 소년들, 그리고 그 아기는 애굽에 보존되고 보호됩니다. 심지어 애굽에 대한 언급조차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가 아기로 태어나자 바로가 그를 죽이려 하고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출애굽기의 원작 이야기를 떠올리는 데는 많은 숙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집트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치하는 내용을 보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튜가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것이 역사적이고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매튜는 단순히 그 이야기와 원본의 일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이제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고 구원하기 위해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 구원자를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 하여 애굽으로 갔을 때, 헤롯이 죽은 후 마태복음 2장 20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은 죽었느니라 하는 것을 기억하라. 흥미롭게도 그 내용은 모세를 죽이려고 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출애굽기 4장 19절을 헬라어로 번역한 칠십인역과 거의 그대로 일치합니다. 이제 그들은 죽었으므로 모세는 목숨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처럼 그의 백성의 구원자, 구원자, 구원자이신 새로운 모세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기 백성의 구원자요 구원자로 일으키십니다. 메시아 왕과 관련하여 베들레헴 위에 있는 별의 개념을 아주 빨리 언급하자면, 다윗파 사람은 아마도 민수기 24장과 17절에 나오는 별에 대한 발람의 예언을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매튜는 그 본문을 인용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암시하고 자신의 이야기에 엮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또 다른 흥미로운 부분은 소위 현자라고 불리는 동방 박사에게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자는 아마도 동방 박사만큼 좋은 용어는 아닐 것입니다. 즉, 이들은 아마도 외국 점성가들일 가능성이 높으며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를 방문하러 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흥미로운 점은 마태가 동방박사들을 예수를 방문하게 한 것에 대해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들이 온 누가와는 대조적으로, 이제 마태에게는 예수를 방문하기 위해 오는 동방

박사들이 있고 그들은 그에게 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가져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 생각에는 마태복음은 아직도 구약성경 본문을 다루고 있는 것 같다. 즉, 구약성서는 여전히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알리는 기본 하위 텍스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싶은 본문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은 이스라엘과 하느님의 백성의 미래 회복에 관한 이사야의 환상 또는 예언의 일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사야는 백성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들의 도시, 그들의 땅으로 회복시키실 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은 그것에 대한 기대 또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읽으면서, 나는 여러분이 마태복음 본문과의 반향이나 공명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베들레헬 위로 떠오르는 별이 빛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는 메시아 왕의 도래를 나타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었으나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시고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느니라 3절, 열방은 네 빛으로 나아오며 왕들은 네

빛으로 나아오리니 동방박사들이 별을 반사하여 별빛으로 베들레헴에
이르리라.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다 모여서 너희에게로 오라.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들아 그들은 먼 곳, 포로 생활에서 오며 너희
딸들은 팔에 안겨 오리니 그 때에 너희가 보고 빛을 발할 것이요 너희 마음은
기쁨으로 뛰고 뛸 것이며 바다가 네게로 오게 되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오리라
낙타 떼, 곧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떼가 네 땅으로 올 것이다. 조금 건너
뛰겠습니다.

8절, 동지에 있는 비둘기 같이 구름을 따라 나는 자들은 누구인가? 과연 섬들이
나를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보니 다시스의 배들이 선두에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둘러쌀 영광 의 형상입니다. 10절,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건축할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리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쳐서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네 성문은 항상 열려 낮이나 밤이나 영원히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게 하려 함이라. 왕들이 승리의 행진을 하였으니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민족이나 나라는 너를 섬기지 아니하고 멸망하고 완전히
망하리라. 레바논의 영광이 네게 이르리니 곧 소나무와 잣나무와 잣나무가 함께
성소를 장식할 것이요 내가 내 발이 있는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제가 읽고 싶었던 또 다른 본문은, 어, 16절로 건너뛰어, 너희가 열방의 젖을 마시며 왕족의 품에 안기게 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 여호와가 너희의 구원자요 너희의 구원자인 줄 알리라 하였느니라. 구속자시며 야곱의 전능자시니라. 나는 놋 대신에 금과 은으로 철 대신을 가져오겠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왕들과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부를 가져오는 모습을 묘사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내 생각에 마태는 이사야 60장에서 그 이야기를 따온 것입니다. 그는 외국 고관들이 자신들의 부와 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오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을 방문할 때 그 부를 가져옴으로써 이사야 60장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 구원자. 그러므로 마태는 이사야의 회복 약속, 하나님 백성의 회복, 도래, 도래하는 구원의 시대,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새 창조에 대한 이사야의 약속이 이미 그 사람 안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그것은 외국 고관들에 의해 입증됩니다. 이 현자들은 부를 가져오고, 그들의 부를 가져오고, 이 외국인들은 떠오르는 별의 빛에 반응하여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그들의 부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이사야 60장을 인용하지 않고, 마태는 이사야 60장과 같은 다른 구약성경의 본문을 언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그 본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보여 주려는 의도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사야서 60장은 출애굽기 전체 주제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의 예수 이야기에 대한 중요한 하위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그의 생애, 특히 2장의 어린 시절이 어떻게 이 많은
 본문들을 성취하고 절정에 이르게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여러 본문을 엮고 또
 엮습니다. 서간서 문헌, 특히 바울 서신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기 위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매우 간단한 예를 하나 제시한 다음 에베소서 2장에서 좀 더
 광범위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과 절 15장에서 우리는
 이미 이 본문을 문학적 맥락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는데,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그가 전하는 복음이 인간의 임명이나 인간의 가르침을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르침을 통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에만 의존합니다. 그 문맥에서 그가 말하는 것
 중 하나는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일
 때 바울은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의 아들.

이제 문제는 왜 그가 태어날 때 구별되었다고 언급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는 태어날 때
 구별되었다고 언급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바울의 생명 보호 관점이 나오는
 것입니까? 바울은 단지 임신 단계에서도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타당하고 낙태 반대나 생명 반대를 지지하는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확실히 이 본문이 그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지 않지만, 내 생각에 이 구절의 의미는 인간의 삶이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한 바울의 판단이 아니다.

그러나 이 진술은 실제로 바울이 구약에서 발견한 진술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두 가지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이 첫 번째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과 5절에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의 자격을 확립하고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책의 나머지 부분. 5절에 보면, 4절로 돌아가면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노라 하셨습니다.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내가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그리고 책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본문은 이사야 49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49장과 1절에서 우리는 종에 관해 비슷한 표현을 봅니다.

이 장들 중 가장 잘 알려진 장인 이사야서 53장은 종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9장 1절 너희 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먼 나라들아 이것을 들으라 이 사람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말하는 종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는 내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1장 5절 본문에 비추어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이 표현은 주로 바울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일치하여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는 것으로 묘사하기 위한 구약의 암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부르심이 구약의 선지자와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시 그의 주장을 논하면서, 그의 사도적 사명과 그의 복음은 인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용하면서, 이사야서 49장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구약의 부르심 이야기 개념을 암시함으로써, 우리는 예레미야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를 태어날 때 따로 구별하시거나 그가 아직 태 속에 있을 때 따로 구별하신다는 생각이 예언적 사명의 언어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일치시키거나 이사야 49장에 비추어 볼 때 아마도 종 자신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울의 주장 중 한 부분인데, 우리가 구약의 배경을 알지 못한다면 놓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직접적인 인용을 통해서가 아니라 구약의 본문을 암시함으로써 호소합니다.

약간 더 광범위한 또 다른 예는 바울이 어떻게 구약 본문의 단어와 구조를 자신의 담화에 엮어 암시를 통해 구약 본문에 호소하는지를 에베소서 2장과 11절부터 22절까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귀를 열어 구약 본문과 공명하는 공명을 듣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장 11절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전에는 이방인이요 본래 무할례자라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할례자인 줄을 기억하라.

즉각적으로 우리는 특정 본문이 아니라 구약의 모세 언약의 매우 중요한 특징인 할례의 개념에 대한 구약의 암시를 발견합니다. 따라서 할례라는 개념은 특정 본문은 아니더라도 이미 구약의 개념과 개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었고, 이스라엘 시민권에서 제외되었고,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습니다.

계약이라는 또 다른 용어가 있는데, 이는 복수형이기도 함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며, 아마도 다음과 맺은 주요 계약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 모세 언약. 그래서 다시 언약이라는 단어를 통해 저자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 부분, 즉 하나님이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없고 소망이 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이 둘을 하나로 만드사 막힌 담 곧 원수를 막는 담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과 그 계명과 법조에 대한 명확한 암시라. 이는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 곧 한 새 사람을 지으시려 하심이니라 둘은 평화를 이룬다.

그리고 이 한 몸으로 이 둘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17절로 내려가서 멀리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러 오셨느니라.

그리고 그분을 통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둘 다 접근권을 얻었습니다.

이는 성전에 접근하는 또 다른 구약의 용어로서 한 영으로 아버지께 접근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더 이상 외국인도, 외국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 성도들과 하나님의 권속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집을 세우나니 곧 모퉁잇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나는 거기에서 멈출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본문은 아니더라도 구약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참조로서 할례와 율법과 언약 외에 몇 가지 다른 것에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멀리 있는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파하는 것에 대해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을 주목 해 보십시오. 바울에게서는 멀리 있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된 이방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의 언어,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는 멀리 있는 이들에게, 가까운 이들에게 평화를 전파하시는 말씀이 다시 한번 선지자 이사야의 언어를 연상시킵니다. 예를 들어, 52장과 7절에는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들어 본 본문이 있습니다. 52절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화평을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 57장 19절, 50장, 57장, 19절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애통하는 자들의 입술에 평강을 베푸시며 멀리 있는 자나 가까운 자에게 평강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바울은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운 사람에게 평화와 평화를 전파하는 이 언어를 선택하고 이를 자신의 상황에 엮습니다.

그러나 더욱이,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는 것에 대한 언급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아마도 이사야서 전체, 특히 43절 19절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창조 언어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62장, 이것도 이사야 62장 2절입니다. 65장과 17절은 저자가 새 창조,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구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새로운 창조 언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62장 2절에 보면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 새로움과 새로운 창조의 언어는 아마도 이제 바울의 새로운 인류 창조에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을 배제한다는 개념은 이사야 56장 3절 전반부에서 이방인을 배제하거나 이방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미래의 하나님의 회복 행위의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는 56장 3절에서 자신을 여호와께 연합한 외국인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그의 백성에서 제외하실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6장은 회복될 때 외국인들까지도 제외되지 않을 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전에 외국인과 나그네였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한 백성에 포함되는 시대를 지적합니다.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잇돌로 언급하는 것조차 이사야서 28장과 16절을 반영합니다.

예루살렘 회복의 기초석, 곧 모퉁잇돌이다. 더욱이 이사야로부터 이 모든 울림과 이 모든 암시와 반향을 들은 것도 가능합니까? 20절에서 이 집안의 기초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언급이 이사야 54장에 대한 암시일 수도 있습니까? 11절과 12절, 즉 11절부터 13절까지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은 다양한 건축용 벽돌과 보석의 기초로 보여지며, 여기서 기초는 매우 귀중한 돌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서 흥미롭게도 쿰란 공동체가 이사야 54장의 이 부분은 은유적으로 쿰란 공동체의 기초 구성원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사야 54장과 그 기초와 함께 예루살렘의 회복을 암시하고 있는 이사야에 대한 이 모든 다른 암시들과 함께, 이제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집, 즉 땅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의 설립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이 가능합니까?

사도와 선지자. 그러므로 이사야의 회복 계획, 새 창조,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을 포함한 새 백성의 회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새 인류, 하나님의 새 백성을 창조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이방인, 교회,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 둘 사이의 적개심이 제거되어 이제 평화와 화해를 가져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것의 성취, 다른 아닌 성취로 여겼습니다.

약속된 회복은 이제 이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능한 구약 배경에 비추어 신약성경 본문을 읽음으로써, 에베소서의 경우 가능한 구약성서의 하위 본문을 다시 2장에서 읽습니다. 비록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결코 인용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 언어, 이미지, 구조를 취하여 이제 그것을 자신의 담론에 엮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새 인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것의 성취이며, 이사야가 그의 예언의 각 장들 전체에 걸쳐 기대했던 회복의 절정입니다.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고 싶은 신약성서의 서신서인 서신서의 마지막 본문은 히브리서 6장과 4장부터 6장입니다. 구약성서와의 공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읽는 신약성경 본문의 울림과 울림을 듣기 위해서는 신약성경을 듣고 신약성경 본문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6장과 4장부터 6장, 6장, 4장부터 6장은 실제로 히브리서 전체에 걸쳐 나오는 일련의 다섯 가지 심각한

경고 중에서 더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2장, 3장과 4장, 그리고 6장에서 하나를 발견하고, 10장과 12장에서 두어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전체에는 이러한 다소 엄중한 경고가 뿌려져 있으며, 나는 저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 자세히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가 다루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경고를 발견하며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경고는 히브리서 6장과 4장부터 6장에 있습니다. 구약의 배경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읽어보면 저자가 구약성경을 인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글을 읽은 전체 내용 중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적어도 이전에는 그것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인정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구약성서의 언급.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이 구약의 구절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 본문의 의미와 읽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탐구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6장, 4장부터 6장까지, 이것은 저자가 기본적으로 독자들에게 경고하는 일련의 경고 구절 중 세 번째입니다. 복음에서 돌아서지 말고, 새 언약의 구원에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셨으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그는 독자들로 하여금 분명히 믿고 제시된 그리스도와 복음에서 떠나지 말고, 등을 돌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과. 6장 4절부터 6절까지는, 한 번 비침을 받은 자,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 성령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을 맛본 자들은 할 수 없느니라. 만일 그들이 타락하거나 또는 더 좋게, 후에 타락하면 그들이 다시 회개하여 돌이키기가 불가능하니 이는 그들이 멸망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복종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공개적으로 불명예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에서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묘사되고 있는 인물들의 목록, 즉 4~6에서 묘사되고 있는 인물들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을 맛보고, 오는 시대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집중하고 싶은 이 본문의 부분이나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구약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션에서 우리는 구약성서, 로마서(안타깝지만 히브리서 6장, 4장부터 6장)에 나오는 이 묘사의 가능한 구약성경 배경을 탐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